

《천부경(天符經)》은
파동체(波動體)인 피라미드의 설계도이다.

글쓴이 : 김상표金相杓 | raysociety@hanmail.net

現, · 빛의 공동체 대표

빛의 공동체 | <http://www.raysociety.net>

| <http://cafe.daum.net/raysociety>

· 글로벌 부모교육센터 자문위원

부모교육센터 | <http://www.gpec.or.kr>

· 정신문화신문 발행인

| <http://news.unify.co.kr>

관련저서와 논문 등

「복본 수증 프로그램」 개발 2007

《빛의 메시지·수증》 레이소사이어티, 2008

《빛의 메시지·UFO》 레이소사이어티, 2008

《천부경은 파동체인 피라미드의 설계도이다》 2007

글의 내용은 《빛의 메시지·UFO, 레이소사이어티, 2008》에서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내용 일부를 마음대로 인용·전제해도 좋습니다. 다만, 출처는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머리말	3
2. 신화가 현실이 된 천부경(天符經)	3
3. 천부경(天符經) 9×9의 비밀	18
4. 마무리하면서	22
5. 참고문헌	23

www.raysociety.net

1. 머리말

우리 민족의 창세신화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화론, 조화론+창조론, 창조론’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조화론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의 성격은 조화론에 근간을 둔 자연사상이다. 따라서 글의 근간을 조화론에 두고 ‘천(天)=허(虛)=자연(自然)=1’이며 ‘지(地)=실(實)=우주(宇宙)=2’이고 ‘인(人)=허+실=3’이라 하였다. 이것은 출현한 순서를 일컫는다. 스스로 출발한 처음은 자연(虛, 1)이고 자연이 생성한 우주(實, 2)와 자연이 우주의 힘을 더하여 생성한 인(人, 3)이라 사상을 덧붙였다. 이 글의 천부경(天符經) 해설은 이런 생성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많은 분이 천부경을 해석하고 있다. 누구의 것이 ‘맞다 또는 틀리다’라는 의견보다 그분들의 해석에 더하여 다른 의견이 하나 더 출현했다고 보아주시기 바란다.

그럼 환국(桓國)에서 구전한 《천부경(天符經)》을 살펴보자. 《환단고기(桓檀古記)》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의 내용이다.

「《천부경》은 천제환국(天帝桓國) 구전(口傳)의 서(書)다. 환웅대성존(桓雄大聖尊)께서 천강(天降)한 후, 신지(神誌) 혁덕(赫德)에게 명하여 녹도문(鹿圖文)으로 그것을 썼다. 최고운 치원(崔孤雲致遠)이 또한 일찍이 전고비(篆古碑)를 보고 갱부작첩(更復作帖)하여 세상에 전한 것이다. 그러나 본조(本朝)에 이르러 유서(儒書)에만 전의(專意)하고 조의(皂衣)와 더불어는 상문(相聞)하지 아니하여 살아남고자 하였으니 그 또한 한(恨)인 것이다. 그런고로 특히 그것을 표출(表出)하여 후대(後來)에게 보인다.

<天符經 81字>

一始無始一析三極無 일시무시일석삼극무
盡本天一一地一二人 진본천일일지일이인
一三一積十鉅無櫃化 일삼일적십거무궤화
三天二三地二三人二 삼천이삼지이삼인이
三大三合六生七八九 삼대삼합육생칠팔구
運三四成環五七一妙 운삼사성환오칠일묘
衍萬往萬來用變不動 연만왕만래용변부동
本本心本太陽昂明人 본본심본태양앙명인
中天地一一終無終一 중천지일일종무종일

《천부경》은 파동체(波動體)의 원리를 기록한 것이다. 하늘에 부합(天符)하는 파동체란 오염되지 않은 천지본음(天地本音)을 송수신(送受信)할 수 있으며, 파동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고어(古語)로 축약설명(縮約說明)하다 보니 앞뒤 문장을 이해 못 할 수밖에 없다. 다소 물의가 있으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원리와 ‘허실 기·화·수·토’설을 더하면 확실하게 보인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문맥(文脈)에 비중(比重)을 두어 기록하겠다.

2. 신화가 현실이 된 천부경(天符經)

“과동체인 피라미드를 만들라.”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기에 무엇인가를 제작하려는 공정(工程, 작업이 진척되는 정도) 순서로 표기하며, 전체를 기록한 후에 상세 설명을 추가하겠다.

「⑩ 출발(無極)

처음에는 1로 시작하되(一始)
시작이 없는(無始) 1(一)로 있었다.

① 근본(根本)

그 1(一)을 쪼개어(析)
3극(三極)으로 나누되
근본의 다함이 없게(無盡本) 하여
천을 1번 움직여 1을 만들고(天一)
지를 1번 움직여 2를 만들고(地一二)
인을 1번 움직여 3을 만들라(人一三).

② 기본형(完成體)

1(一)씩 쌓아서(積)
10(十)으로 크게(鉅) 하되
막힘이 없는(無櫃)
저절로 생긴(化) 3(三)을 포함하라.

③ 설계(設計)

천을 2번 움직여 3을 만들고(天二三)
지를 2번 움직여 3을 만들고(地二三)
인을 2번 움직여 3을 만들라(人二三).

④ 확장(擴張)

3을 합해 크게 한(大三合)
6(六)으로 만들어
7, 8, 9로 확장하라(生七八九).

⑤ 축소(縮小)

3을 움직여(運三)
4를 만들어(四成)
7이나 5로 둘러싸도 된다(環五七).

⑥ 시방서(示方書)

1(一)이 묘하도록(妙) 넘치게(衍)
왔다 갔다(萬往萬來) 해도
쓰임새의(用) 변함이(變)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不動本) 하라.

⑦ 면허(資格)

본심(本心)이
태양에서 비릇한(本太陽) 것처럼 밝게(昴) 드러난
밝은 사람(明人)만 자격을 얻어(中)

천지(天地)자연과 1(一)이 될 수 있다.

⑧ 새출발(復本)

1을 마무리(一終)하면

끝남이 없는(無終) 1(一)로 복귀한다.」

번역(翻譯)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었다. 전체를 보고 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먼저 기록하였다. 우선 예비지식을 추가하고자 다음 글들을 읽고 넘어가자. 첫 번째 글은 《주해 환단고기》의 내용 중 3세 단군(檀君) 가락(嘉勒)’이 글자를 만든 기록을 발췌하였다.

「경자 2년(B.C 2181년) 시속(時俗)이 오히려 같지 아니하고 방언(方言)이 서로 달랐다. 상형표의(象形表意)의 진서(眞書)가 있었으나 10가(家)의 읍(邑)의 말이 대부분 통하지 아니하고 100리의 국가가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때에 삼랑 을보룩에게 명하여 정음(正音) 38자를 찬(撰)하니 이를 가림토(加臨土)라 하며 그 글은

· 1 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ㅋ	이다.」
ㅇ ㄱ ㄴ ㄷ ㄹ ㅈ ㅊ ㅌ ㅍ ㅎ ㅍ ㅍ ㅍ	
ㅂ ㄷ ㅌ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위와 같은 글을 발췌하여 언급하는 취지는, ‘글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훨씬 후에 완성된다.’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기록이 없다 해서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상(思想) 이라는 것도 말(言)의 역사(歷史) 이전부터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글자에 사상의 배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자. 서병국님의 《신강(新講) 훈민정음》의 내용 중 《훈민정음 해례》에서 일부를 따왔다.

「중성(中聲)은 무릇 11자(字)이니 ‘·’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으며, 하늘이 자(子)에서 열리는 것이요, 형상(形象)의 둥글음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一’는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지도 알지도 않으며, 땅이 축(丑)에서 열리는 것이다. 형상(形象)의 평평(平平)함은 땅을 본뜬 것이요, ‘ㅣ’는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소리가 얕으며, 사람이 인(寅)에서 남이요, 형상(形象)의 섬(立)은(선 모양인 것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이 아래의 여덟 소리는 하나가 합(闔)이면 하나가 벽(關)이니, ‘ㅇ’는 ‘·’와 같되 입이 오므라지고, 그 풀은 ‘·’와 ‘一’가 합(合)하여 된 것이니,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는 뜻을 취(取)한 것이요, ‘ㅏ’는 ‘·’와 같되 입이 벌어지고, 그 풀은 ‘ㅣ’와 ‘·’가 합(合)하여 된 것이니, 천지(天地)의 작용(作用)이 사물(事物)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뜻을 취(取)한 것이요, ‘ㅑ’는 ‘一’와 같되 입이 오므라지고, 그 풀은 곧 ‘一’와 ‘·’가 합(合)하여 된 것이니, 또한 천지(天地)가 처음 사귀는 뜻을 취한 것이요, ‘ㅓ’는 ‘一’와 같되 입이 벌어지고, 그 풀은 곧 ‘·’와 ‘ㅣ’가 합(合)하여 된 것이니, 또한, 천지(天地)의 작용(作用)이 사물(事物)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뜻을 취(取)한 것이다.

‘ㅇ’는 ‘ㅇ’와 같되 ‘ㅣ’에서 일어난다. ‘ㅏ’는 ‘ㅏ’와 같되, ‘ㅣ’에서 일어난다. ‘ㅑ’는 ‘ㅑ’와 같되 ‘ㅣ’에서 일어난다. ‘ㅓ’는 ‘ㅓ’와 같되 ‘ㅣ’에서 일어난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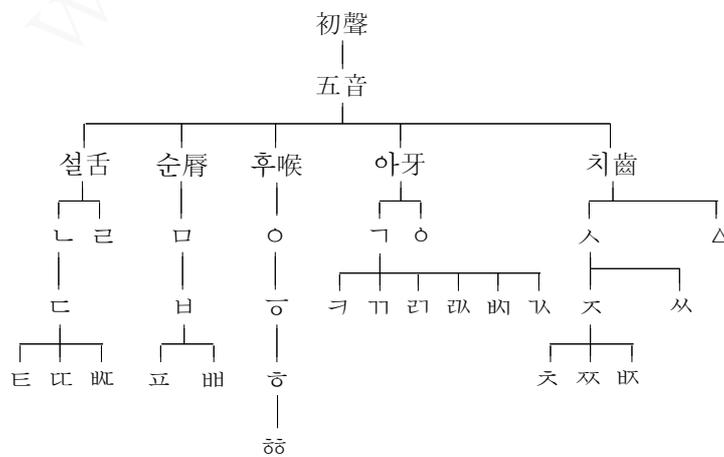
‘ㄱ ㄴ ㄷ ㄹ’는 천지(天地)에서 비롯하여 초출(初出)한 것이요, ‘ㅁ ㅂ ㅅ ㅈ’는 ‘ㅣ’에서 일어나서 인(人)을 겸(兼)하여 재출(再出)한 것이다. ‘ㄱ ㄴ ㄷ ㄹ’의 그 원(圓)을 하나로 한 것은 초생(初生)의 뜻을 취(取)한 것이요, ‘ㅁ ㅂ ㅅ ㅈ’의 그 원(圓)을 둘로 한 것은 그 재생(再生)의 뜻을 취(取)한 것이다. ‘ㄱ ㄴ ㅁ ㅂ’의 원(圓)이 위와 밖에 놓인 것은 그것이 天(하늘)에서 나와서 양(陽)이 됨이요, ‘ㄷ ㄹ ㅅ ㅈ’의 원(圓)이 아래와 안쪽에 놓인 것은 그것이 地(땅)에서 나와서 음(陰)이 됨이다.

‘·’가 여덟 소리를 췌(一貫한) 것은 양(陽)이 음(陰)을 거느려 만물(萬物)에 두루 흐름과 같음이요. ‘ㅁ ㅂ ㅅ ㅈ’가 다 人(사람)을 겸(兼)함은 사람은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 되어 능(能)히 양의(兩儀)에 참여(參與)하기 때문이다.

천(天)·지(地)·인(人)에서 본을 떠서 삼재(三才)의 도(道)가 구비(具備)되었다. 그러나 삼재(三才)가 만물의 먼저(始初)가 되되, 天(하늘)은 또 삼재(三才)의 시초(始初)가 되는 것이니, ‘· 一 ㅣ’ 3자(字)가 여덟 소리의 우두머리가 되되, ‘·’가 3자(字)의 으뜸이 됨과 같다.

‘ㄱ’가 처음 天(하늘)에서 나니 천일생수(天一生水)의 위(자리)요, ‘ㄴ’가 다음이니 천삼생수(天三生水)의 위(위)요, ‘ㄷ’가 地(땅)에서 처음 나니 지이생화(地二生火)의 위(위)요, ‘ㄹ’가 다음이니 지사생금(地四生金)의 위(위)요, ‘ㅁ’가 天(하늘)에서 재생(再生)하니 천칠성화(天七成火)의 수(數)요, ‘ㅂ’가 다음이니 천구성금(天九成金)의 수(數)요, ‘ㅅ’가 地(땅)에서 재생(再生)하니 지육성수(地六成水)의 수(數)요, ‘ㅈ’가 그 다음이니 지팔성목(地八成木)의 수(數)이다. 수화(水火)는 氣(現象)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음양교합(陰陽交合)의 시초(始初)이기 때문에 함(闔)이요, 목금(木金)은 음양(陰陽)의 정질(定質, 固定한 質)이기 때문에 벽(闕)이다.

‘·’는 천오생토(天五生土)의 위(위)요, ‘一’는 지십성토(地十成土)의 수(數)요, ‘ㅣ’가 홀로 위(위)나 수(數)가 없는 것은 대개(大概) 사람이란 곧 무극(無極)의 진리(眞理)와 이오(二五)의 정기(精氣)가 묘(妙)하게 함(合)하여 영긴 것이니, 진실로 정위(定位)와 성수(成數)로는 논(論)할 수 없다. 이는 곧 중성(中聲) 중(中)에 또한 스스로 음양(陰陽) 오행(五行) 방위(方位)의 수(數)가 있는 것이다.<중략>



초성제자(初聲制字)를 표(表, tree diagram)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읽으시느라 노고(勞苦)가 많으셨다. 지금부터 《훈민정음》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로 《천부경(天符經)》을 해설해 보겠다.

① 출발(無極)

원문	一:한 일, 始:시작할 시, 無:없을 무, 始:시작할 시, 一:한 일
직역	처음에는 1로 시작하되(一始) 시작이 없는(無始) 1(一)로 있었다.
의역	처음 시작한 하나에는 모든 것이 조화(造化)로운 무극(無極)시대였다.

무극(無極)이란 만물(萬物)의 근원(根源, 原理)인 태극(太極)의 처음 상태를 의미한다. 무극에서 비롯한 태극에서 만물을 구성하였는데 이 태극은 음(陰)·양(陽), 암(暗)·명(明)이 분화하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는 허(虛)와 실(實)이 조화로운 상태, 기(氣)·화(火)·수(水)·토(土)가 서로 섞여 빛이 낮과 밤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즉 모든 것이 조화로우니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서양에서 말하는 카오스(chaos)와 같은 대립(對立)과 무질서(無秩序)와 혼돈(混沌)과는 다르다.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는 ‘허(虛)와 실(實)’이란 자연시스템(自然 system)을 일컫는다. 우주 창조의 원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빛과 어둠은 밝음과 어둠으로 이해해야 하며, 어둠도 또한 빛의 일종임을 인지해야 한다. 빛이란 전체에 해당하며 사랑이며 조화이며 생명으로 가시광선(可視光線)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① 근본(根本)

원문	析:쪼개질 석, 三:석 삼, 極:다할 극, 無:없을 무, 盡:다할 진, 本:근본 본, 天:하늘 천, 一:한 일, 一:한 일, 地:땅 지, 一:한 일, 二:두 이, 人:사람 인, 一:한 일, 三:석 삼
직역	그 1(一)을 쪼개어(析) 3극(三極)으로 나누되 근본의 다함이 없게(無盡本) 하여 천을 1번 움직여 1을 만들고(天一) 지를 1번 움직여 2를 만들고(地一二) 인을 1번 움직여 3을 만들라(人一三).

의역	무극을 쪼개어 천(天, 하늘)·지(地, 땅)·인(人, 사람)의 의미를 부여한 세 개로 나누되, 천을 1번 움직여 1변을 만들고, 지를 1번 움직여 2변을 만들고, 인을 1번 움직여 3변(정삼각형)을 완성하라.
----	--

삼극(三極)이란, 삼재(三才) 즉 하늘(天:하늘 천)과 땅(地:땅 지)과 사람(人:사람 인)을 뜻한다. 위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삼재를 언급하였는데, “천(天)·지(地)·인(人)에서 본을 떠서 삼재(三才)의 도(道)가 구비(具備)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삼재를 천·'지'·'인'·'이'로 사상을 부여했지만, 《천부경》에서는 삼재를 천·'지'·'인'·'이'로 했다. 이것은 “근본의 다함이 없게 하라(無盡本).”라는 말이 뒷받침해준다. 또한 ⑥ 시방서(示方書)에 “1(一)이 묘하도록(妙) 넘치게(衍) 왔다 갔다(萬往萬來) 해도 쓰임새의(用) 변함이(變)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不動本) 하라.”는 말도 이 문장을 뒷받침해준다.

삼극(三極)	天一	地一二	人一三
天 地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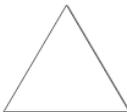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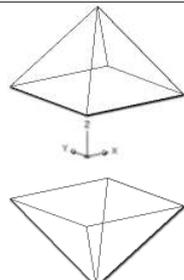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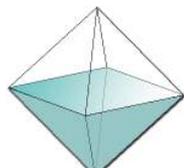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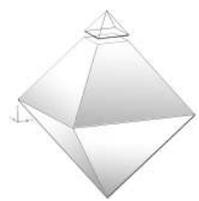
즉, 삼재로 나누되 ‘근본의 다함이 없게’하려면 모양과 규격이 같아야 하므로 천·'지'·'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삼(三)’을 만들어 천·'지'·'인'·'삼(三)’을 합하면 ‘△’모양의 정삼각형(正三角形,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 된다.

② 기본형(完成體)

원문	一:한 일, 積:쌓을 적, 十:열 십, 鉅:클 거, 無:없을 무, 櫃:함 궤, 化:저절로 생길 화, 三:석 삼
직역	1(一)씩 쌓아서(積) 10(十)으로 크게(鉅) 하되 막힘이 없는(無櫃) 저절로 생긴(化) 3(三)을 포함하라.
의역	허(虛)와 실(實)의 개념을 응용하여 1면씩 쌓아서 크게 10면체로 완성하되, 막힘이 없는 삼각(三角)으로 된 5면체를 포함하라.

결론이 앞쪽에 있다. 일반적인 논문의 경우 ‘서론-본론-결론’으로 문장을 구성하는데,

결론을 앞에 두면 뒷문장의 이해가 쉽고 복잡할 기회도 부여되는 표현 기법이다. 도해(圖解)한 그림을 먼저 살펴보자.

一	積(5+5교차)	十鉅(10면)	無櫃化三
			

1(一)면씩 쌓아서(積) 10(十)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림에 표현한 십거(十鉅)는 8면이다. 이것은 적(積)의 그림에서 5면과 5면이 교차하면서 하부(下部)의 사각형(1면+1면)이 보이지 않으므로, 십거(十鉅)의 그림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실(實)의 8면이지만 실제로는 허(虛)의 10면에 해당한다. 즉, 보이는 10면(實)이 아닌 보이지 않는 10면(虛)으로 바꿔 표현하였다.

“막힘이 없는(無櫃) 저절로 생긴(化) 3(三)을 포함하라.”라는 표현을 보자. 위 표의 십거(十鉅)에 대한 표현대로 하부를 막혀 있는 모습으로(有櫃) 크게 한 후 ‘막힘이 없는 삼(無櫃化三)을 추가한 표현이다. 응용하면 맨 오른쪽의 그림과 같다.

허(虛)의 10면을 이해하고자 ‘허실(虛實) 기(氣)·화(火)·수(水)·토(土)설’을 언급한 부분을 《부도지(符都誌)》에서 살펴보자.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면 운삼사성(運三四成)에 대한 내용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17장’부터의 내용이다.

「때에 도요(陶堯)가 천산(天山)의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일차로 성을 나간(出城) 사람들의 후예였다. 일찍이 제시(祭市)의 모임에 왕래하고, 서쪽 보(堡)의 간(干)에게서 도(道)를 배웠다. 그러나 원래 수(數)에 부지런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9수5중(九數五中)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중5(中五) 이외의 8은 1이 즉 8이라고 생각하고 내(內)로써 외(外)를 제어하는 이치라 하여, 오행(五行)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주창하므로, 소부(巢夫)와 허유(許由) 등이 심히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요가 곧 관문 밖으로 나가, 무리를 모아 묘예(苗裔)를 쫓아내었다. 묘예는 황궁씨의 후예였으며, 그 땅은 유인(有因)씨의 고향이었다. 후대에 임검(壬儉)씨가 여러 사람을 이끌고 부도를 나갔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습격하니, 묘예가 마침내 동·서·북의 세 방향(三方)으로 흩어졌다.

요가 곧 9주(九州)의 땅을 그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5중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여, 당도(唐都)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때에 거북이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負文)과 명협(莢莢)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 하여, 그것으로 역(曆)을 만들고, 천부(天符)의 이치를 폐하여 부도(符都)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간세상의 두 번째 큰 변이었다.

<중략-21장으로 연결>

또 소위 오행(五行)이라는 것은 천수(天數)의 이치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위(方位)의 중앙 5는 교차(交叉)의 뜻이요, 달라진 움직임(變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1로부터 9까지 이므로 5는 언제나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9가 윤회하여 율

(律)과 여(呂)가 서로 조화를 이룬 후에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니, 이는 기수(基数)를 이루는 것이요, 그 5·7이 크게 번지는 고리(大衍之環)에 이르면, 그 자리가 5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4·7이 있는 것이다. 또 그 순역(順逆) 생멸(生滅)의 운역(輪纂)은 4요 5가 아니니, 즉 원수(原數)의 9는 불변수이기 때문이다. 또 운역이 한 번 끝나는 구간은 $2 \times 4 = 8$ 사이의 7이요, 5가 아니다.

또 그 배성지물(配性之物)은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 중에서 금(金)과 토(土)를 왜 따로 구별하는가.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구별하고자 한다면 기(氣)·풍(風)·초(草)·석(石) 따위는 어찌 같이 들지 않는가. 그러므로 다 들자면 수가 없는 것이요, 엄밀히 구별해서 들자면, 금·목·수·화 혹은 토·목·수·화의 넷이요, 다섯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 물성(物性)을 어떤 이유로 수성(數性)에 짝 지우는가. 수성지물(數性之物)은 그 원수가 9요, 5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행의 설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것이다. 이로써 인간세상을 증명하여 밝히는(證理) 일을 속여서 무혹(誣惑)하게 하여 곧 하늘의 화(天禍)를 만드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또 그 역제(曆制)는 천수(天數)의 근본을 살피지 못하고 거북이나 명협과 같은 미물(微物)에서 근본을 취하였으니, 요는 또 무슨 속셈인가. 천지의 만물이 다 수에서 나와 각각 수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필 거북과 명협뿐이겠는가. 모든 사물(物事)에 각각 그 역(曆)이 있으니, 역은 역사(歷史)다. 그러므로 요의 역제는 거북과 명협의 역이요, 인간의 역이 아니니, 그것이 인간세상(人世)에 부합하지 않는(不合)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이런 까닭에 삼정(三正)을 반복하여 구차스럽게 맞추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여, 마침내 하늘의 죄를 끌어들었다. 역(曆)이라는 것은 인생증리(人生證理)의 기본이므로 그 수는 몸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역이 바르면 천리(天理)와 인사(人事)가 증합(證合)하여 복이 되고, 역이 바르지 못하면 천수에 어긋나 화가 되니, 이는 복은 이치가 존립(存立)하는데 있고, 이치는 바르게 밝히는(正證) 데에 존립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역의 바르고 바르지 못함은 인간세상의 화복(禍福)의 발단이니, 가히 삼가지 않을 것인가. 옛날 오미(五味)의 화(禍)가, 한 사람의 미혹에서 나와 만대의 산사람(生靈)에게 미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역의 화가 장차 천세(天世)의 진리에 미치고자 하니 두렵기만 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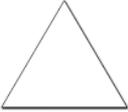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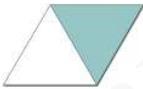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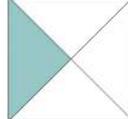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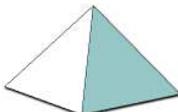
허(虛)와 실(實)이 '없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는' 교차(交叉)의 개념을 설명한다. 십거(十鉅)가 10면이면서도 8면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며, 기(氣)·화(火)·수(水)·토(土)로 상징하는 하부 면의 4각형을 설명한다. 또한, 기(氣)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기본으로 사용되는 4원소(元素) 중 바람(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근본에 해당하는 허(本, 虛)의 천(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바르다.

③ 설계(設計)

원문	天:하늘 천, 二:두 이, 三:석 삼, 地:땅 지, 二:두 이, 三:석 삼, 人:사람 인, 二:두 이, 三:석 삼
----	---

직역	천을 2번 움직여 3을 만들고(天二三) 지를 2번 움직여 3을 만들고(地二三) 인을 2번 움직여 3을 만들라(人二三).
의역	삼재(三才)에 더하여 천을 2번 움직여 3각형을 만들고, 지를 2번 움직여 3각형을 만들고, 인을 2번 움직여 3각형을 만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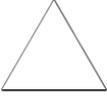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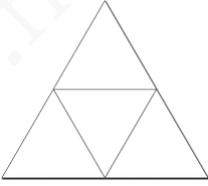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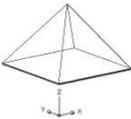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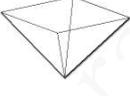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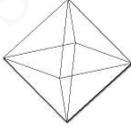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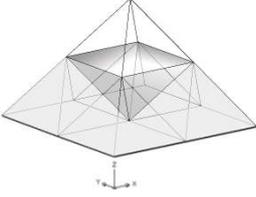
삼극(三極)의 기본형에 천·지·인을 각 2번씩 움직여 하단에 4각형이 있는 오면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원문’에는 원문을 도해하며, ‘전개’는 전개도(展開圖, 입체의 표면을 평면 위에 펼쳐 놓은 도형)를, ‘평면’은 위에서 보이는 모양을, ‘입체’는 투시도(透視圖, 투시도법에 따라 그린 그림)를 보인다.

구분	一(三極)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원문				
전개				
평면				
입체				

다음은 응용하는 법을 기록했는데 ③ 설계(設計)까지의 내용을 확장·축소하는 법을 설명한다.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동일계열의 글자를 파생하는 《훈민정음》의 원리를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란다.

④ 확장(擴張)

원문	大:큰 대, 三:석 삼, 合:합할 합, 六:여섯 육, 生:자랄 생, 七:일곱 칠, 八:여덟 팔, 九:아홉 구
직역	3을 합해 크게 한(大三合) 6(六)으로 만들어 7, 8, 9로 확장하라(生七八九).
의역	3각(3변, 5면체)을 역방향으로 하나 더 만들어 더하면 허·실 개념의 6각(6변, 내각이 6개, 허의 10면)이 되는데 수없이 확장해도 좋다.

구분	三+三		大三合六	生七八九
입면				
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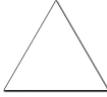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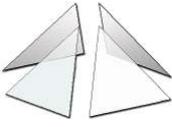
이 부분도 그림을 먼저 살펴보자. 위에 설명한 같은 방법이라 딱히 추가할 말도 없다. 다만 생(生:날 생)을 생(生:자랄 생)으로 해석한 것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생(生)은“7, 8, 9 등으로 무한히 확장해도 된다.”라는 의미이다.

생칠팔구(生七八九)의 그림에는 삼각으로 된 모형을 설명했지만 꼭 삼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대삼합육(大三合六)을 옆으로만 무한히 확장해도 된다.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⑤ 축소(縮小)

원문	運:운전할 운, 三:석 삼, 四:넋 사, 成:이룰 성, 環:둘레 환, 五:다섯 오, 七:일곱 칠
직역	3을 움직여(運三) 4를 만들어(四成) 7이나 5로 둘러싸도 된다(環五七).

의역	3각을 움직여 4면을 완성한 후에, 부재를 7개나 5개로 한두 개씩 빼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⑥ 시방서(示方書)’의 ‘쓰임새의 변함이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不動本)’했기 때문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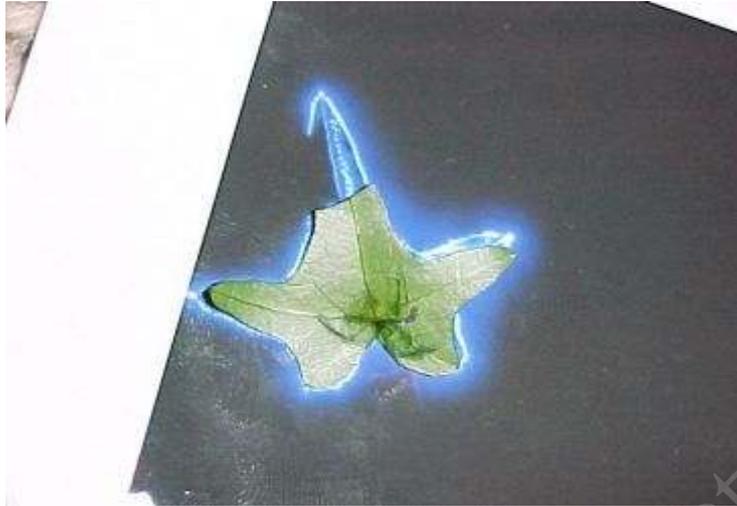
運三	四	成	環五七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7 6 5 4 </div>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② 기본형(完成體)’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일단 표를 먼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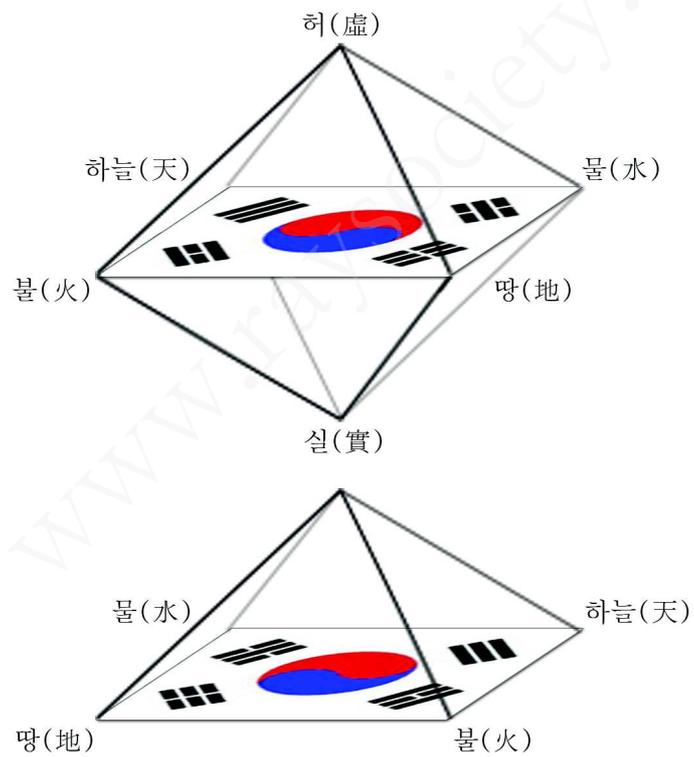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환(環)을 ‘고리 환’으로 해석한다. 글쓴이는 ‘둘레 환’으로 해석했다. 환경(環境)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事典)에는 ‘생물에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라 설명한다. 즉 ‘삼각을 움직여서(運三) 사각뿔(四成)을 만들 수 있는데, 위의 ‘④ 확장’에서 생칠팔구(生七八九)에 대하여 설명했던 것처럼 7이나 5로 둘러싸도(環五七, 줄여가도)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기본형(完成體)’에서 설명한 허(虛)와 실(實)의 개념으로 위 표에 사용한 환오칠(環五七) 4개의 그림에는 허(虛)의 5면을 유지하며 부재(部材)를 7개 → 6개 → 5개 → 4개까지 줄여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8개의 부재(實)를 7개로 줄이고, 6개로 줄이고, 5개로 줄여도 가상(假象)의 선(線)이 존재(虛)하여 5면(사각뿔)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천부경》은 입체로 만들어진 파동체(波動體)를 설명한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 원리(原理)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나 요소의 근간(根幹)을 이루기 때문에 응용하여 해석하면 ‘생체에너지장’으로 표현하는 유상효과(幽像效果, phantom effect, 나뭇잎을 일부 자른 다음 전극판 위에 놓고 사진을 찍었을 때, 잘라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형상이 찍혀 나오는 현상)를 설명하기도 한다. ‘생체에너지장’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는 세미온 킬리안(Semyon D. Kirlian)이라는 사람이 발명하여 킬리안 사진기라고도 부른다. 즉 허(虛)의 개념을 적용하는 파동체에는 잘려나가거나 고장이 나도 보이지 않는 선(線)을 기억하기 때문에 형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에너지상이 남는다. 곧 환오칠(環五七)은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는’ 허(虛:빌 허)와 실(實:찰 실) 개념(概念)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다.



참고1 : 킬리안사진 유상효과 ©unkn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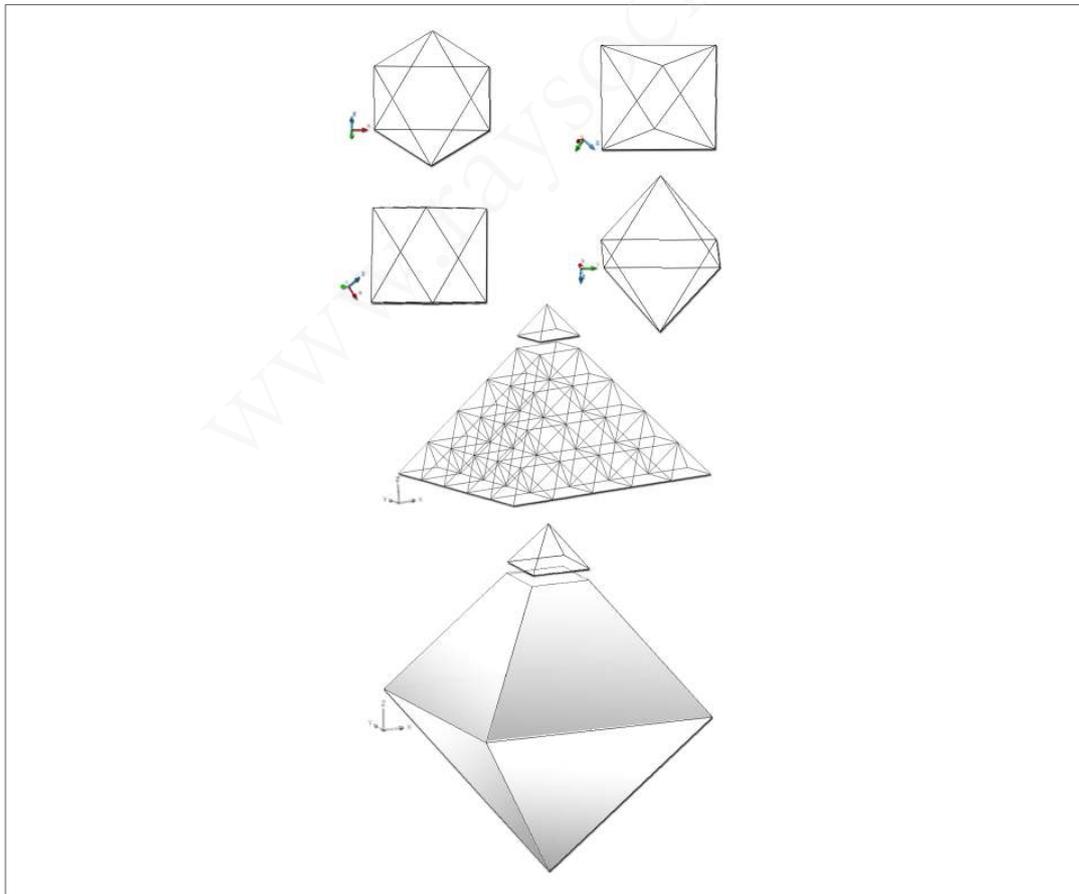


참고2 : 태극기의 허실 기화수토

㉔ 시방서(示方書)

원문	一:한 일, 妙:묘할 묘, 衍:넘칠 연, 萬:일만 만, 往:갈 왕, 萬:일만 만, 來:올래, 用:쓸 용, 變:변할 변, 不:아닐 부, 動:움직일 동, 本:근본 본
직역	1(一)이 묘하도록(妙) 넘치게(衍) 왔다 갔다(萬往萬來) 해도 쓰임새의(用) 변함이(變)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不動本) 하라.
의역	모든 형상(形狀)과 규격(規格)을 같이 하여, 한 개의 부재(部材)를 떼 내어 넘치도록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도 쓰임새의 변함이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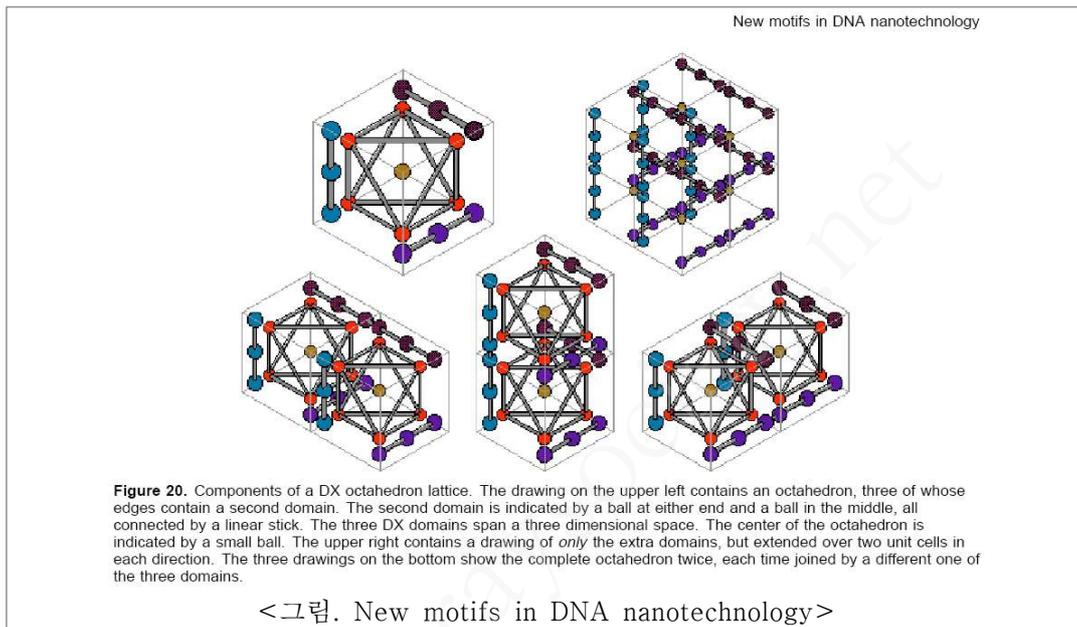
시방서(示方書, specification)란, 공사·제품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품질, 사용처·시공 방법 등 설계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일컫는다. ‘① 근본’에서 ‘⑤ 축소’까지 해당하는 내용이다. ‘① 근본’의 무진본(無盡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⑤ 축소’의 환오칠(環五七)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구절 때문에 삼극(三極)으로 구성된 정삼각형이 평면에서 3차원의 입체(立體)로 떠오른다.



위 그림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모의실험,

simulation)한 결과이다. 공교롭게도 왼쪽 위 그림의 경우 ‘다윗의 별’이라는 ‘솔로몬과 다윗왕의 무덤 덮개에 새겨져 있는 문양’과 같은 형상을 보인다. ‘피라미드’와 ‘히란야’의 모습이기도 하다. 《카발라》에 기록한 문양과도 세부적으로 일치하며, 《삼일신고(三一神誥)》의 ‘진리도(眞理圖)’형태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 모습을 보인다. 하단의 입체는 일적십거무계화삼(一積十鉅無櫃化三)을 재생한 그림인데 상부가 ‘1달러 지폐(USD)’의 피라미드 디자인과 흡사하다.

또한, 1998년도 뉴욕대학교 화학과(Department of Chemistry, New York University)에서 발표한 《New motifs in DNA nanotechnology》라는 문서에는 DNA의 형상이 위 그림의 모습과 같은 형상을 보인다.



물분자가 수소결합으로 고리를 형성하여 6각수가 된다는 ‘6각수 이론’을 따라 모형을 조립하면 물(H₂O) 또한 같은 형상을 띤다. 물은 저온(低溫)일 때 6각수의 비율이 높아진다.

‘인간복제’로 표현하는 ‘게놈프로젝트’를 설명할 수도 있다. ‘하나(一)의 원리에 모든 것을 담아, 묘하도록(妙) 넘치게(衍) 왔다 갔다(萬往萬來) 해도 쓰임새의(用) 변함(變)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不動本)기 때문이다. 결국, 세포를 떼어다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도, 생체에너지장(虛)으로 형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허(虛)·실(實) 개념의 환오칠(環五七)처럼 그 기억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변화 적용하여 그 역할 그대로를 수행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다. 생명체의 구동 원리이다.

⑦ 면허(資格)

원문	本:근본 본, 心:마음 심, 本:비롯할 본, 太:클 태, 陽:별 양, 昴:밝을 앙, 明:밝을 명, 人:사람 인, 中:가운데 중, 天:하늘 천, 地:땅 지, 一:한 일
----	--

직역	본심(本心)이 태양에서 비릇한(本太陽) 것처럼 밝게(昂) 드러난 밝은 사람(明人)만 자격을 얻어(中) 천지(天地)자연과 1(一)이 될 수 있다.
의역	본심(本心)이 태양처럼 밝게 드러나도 흠(欠)이 보이지 않는 명인(明人, 하늘의 품성인‘天稟’을 회복한 사람)만 자격(修證)을 얻어 천지자연과 일체(一體, 사랑體, 波動體, 육체를 가진 영원한 생명체)가 될 수 있다.

이 구절은 천지인합일(天地人合一)을 설명하는 말로 ‘사람(人)이 하늘(天)과 땅(地)과 일체(一體)가 되는 경지’를 표현한다. 대자연의 기(氣)에 자신이 완벽하게 동화한 상태를 일컫는다. 그런데 ‘본심이 태양처럼 밝게 드러난 사람 중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중(中: 가운데 중)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印: 도장 인)’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도장(圖章)이란 인주를 묻힌 후 서류에 찍어 증거로 삼는 물건으로 조건·약조·계약·소유·자격 등을 의미한다. 중(中)은 격조사(格助詞)로서 의존명사이며 ‘안이나 속’ 또는 ‘여럿 가운데에서’라는 의미로 일정한 자격을 의미한다. 일정한 한계를 정해 놓은 자격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인(印)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글자가 아닌가 싶다. 곧 명인중천지일(明人中天地一)이라는 말은 명인(明人)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존재로 천인(天人, 波動體)을 설명한다.

그런데 글쓴이가 갑자기 ‘인(印: 도장 인)’이라는 글자를 설명하는 데 대하여 궁금할 것이다. 천부삼인(天符三印)을 설명하려는 복선(伏線, 뒷일의 준비로서 미리 암암리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사전(字典, 한자의 뜻을 풀어놓은 책)에는 천(天)을 ‘하늘 천, 만물의 근본 천, 조물주 천, 임금의 경칭 천, 지아비 천’이라고 표현하며 부(符)를 ‘증거 부, 꼭 맞을 부’로 합치 또는 들어맞다는 의미로 사용하여 부새(符: 꼭맞을 부, 璽: 도장 새)라는 말을 지상에서 제일 높은 존재인 ‘임금의 도장’이라고 표현한다. 정리하면 천부삼인이라는 말은 ‘만물의 근본인 하늘에 꼭 맞는 세 가지의 증거’를 일컫는 말이다.

‘⑦ 면허(資格)’에서 ‘밝은 사람(明人)만 자격을 얻어(中) 천지(天地)자연과 1(一)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에서 ‘명인(明人) 중에서 천인(天人)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으니 바로 천부일인(天符一印)이요, 파동체(波動體)를 설명한 ‘① 근본에서 ⑤ 축소’까지의 내용이 천부이인(天符二印)이요, 이것을 구동하려는 내용을 설명한 무궤화삼(無軌化三)이 바로 천부삼인(天符三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결국 《천부경》이 천부삼인(天符三印)을 설명하는데, 가상의 천부삼인이 아닌, 파동의 원리에 기반(基盤)을 둔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고조선(古朝鮮) 건국 내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고기(古記)에는 말하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넘보아 사람의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이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차려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널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만했다. 이에 환웅에게 천부인

(天符印) 세 개를 주어 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3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마루에 있는 신단수(神檀樹) 밑에 내려가니, 이곳을 신시(神市)라 하고, 그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고 한다.”」

신화(神話) 속에서 존재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 아닌 실질적으로 파동체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 되어'신화가 현실(現實)이 되는 순간이다.'「수증(修證)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밀한 양심의 상태가 되면 마음속이 광명개천(光明開天, 명인이 되어 하늘을 연다.)·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재세이화(在世理化, 세상을 이치대로 다스린다.)로 가득하여'천지자연(天地自然)의 세상만물(世上萬物)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화로운 존재하는 상태, 오로지 참사랑이 가슴 가득히 북받쳐 오르는 상태'를 끝없이 유지한다. 명인(明人)을 넘어선 천인(天人)에 해당한다.

천부삼인(天符三印)에 해당하는 조향장치(操向裝置, 운전장치)인 무궤화삼(無軌化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의'파동벨트(波動벨트, ray belt) 이야기'에서 추가하여 설명하겠다.

⑧ 새출발(復本)

원문	一:한 일, 終:마칠 중, 無:없을 무, 終:마칠 중, 一:한 일
직역	1을 마무리(一終)하면 끝남이 없는(無終) 1(一)로 복귀한다.
의역	수증(修證)을 완료하여 천지자연(天地自然)과 일체(波動體)하면 새로운 세상, 하늘(天)·땅(地)·사람(人)이 조화(造化, 符都,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세상)로운 세상이 다시 열린다.

이렇게 되면'⑧ 새출발(復本)'의 내용은 설명하나 마나가 된다. 복본(復本)은 이론상이 아닌 실질적인 복본이 된다. 즉'파동체(波動體)를 만들어, 무한 생명체가 되어, 우주 전체를 무대로 언제 어디서나 행복이 넘치도록 존재하라.'는 말에 해당한다. 이 조건으로 위선(僞善)과 가식(假飾)이 없는 천인(天人)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말론(終末論, eschatology)이나 개벽(開闢)사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만, 인간세상(人世)의 파멸(破滅)이 아닌'새로운 세상으로의 안내이다.' “지구는 비좁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자질구레하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주로 웅비(雄飛)하라'는 메시지이다.

3. 천부경(天符經) 9×9의 비밀

《천부경(天符經)》은 가로 9글자, 세로 9글자, 총 81자로 구성한다. 왜 정방형(正方形) 81자로 구성하여 표현했었는지 도해(圖解)하여 살펴보는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해설은 본문에서 충분히 했으므로 생략하겠다.

① 처음

처음의 하나는



② 출발(無極)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는'허(虛)와 실(實)이 조화로운 태극(太極)의 처음 상태인 무극시대, 파동(波動)의 시대로 있었다.



③ 만들기

그때로 돌아오도록 파동체(피라미드, ray frame)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다. 부디 완성하여 돌아오기 바란다.

本								
衍	萬	往	萬	來	用	變	不	動
運	三	四	成	環	五	七	一	妙
三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三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一	三	一	積	十	鉅	無	櫃	化
盡	本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始	無	始	一	析	三	極	無

④ 자격(資格)

파동체는 '본심(本心)이 태양처럼 밝게 드러나도 흠(欠)이 없는 사람'만 자격을 얻어 운전할 수 있다.

中	天	地	一					
本	本	心	本	太	陽	昂	明	人
衍	萬	往	萬	來	用	變	不	動
運	三	四	成	環	五	七	一	妙
三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三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一	三	一	積	十	鉅	無	櫃	化
盡	本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始	無	始	一	析	三	極	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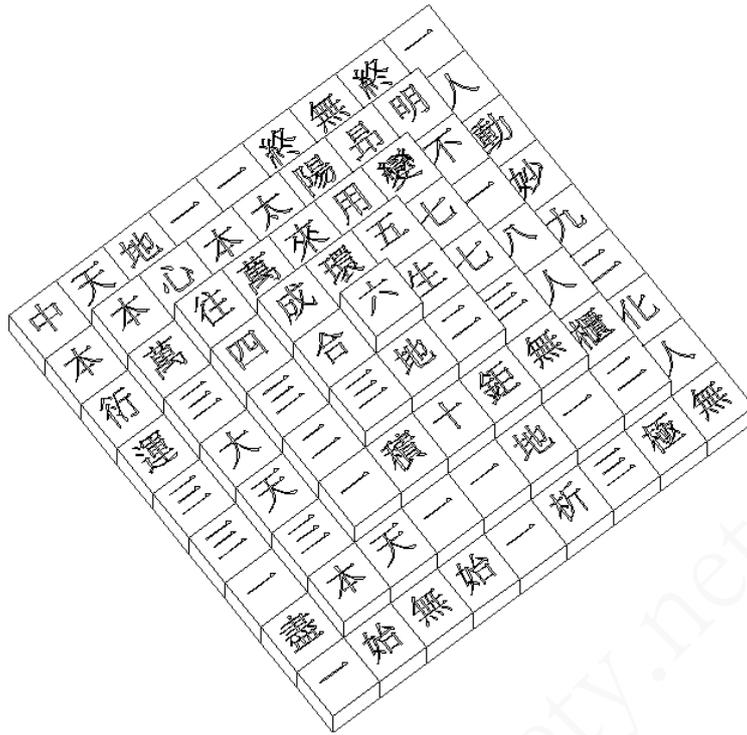
⑤ 새출발(復本)

그때로 돌아오면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린다.

中	天	地	一	一	終	無	終	一
本	本	心	本	太	陽	昂	明	人
衍	萬	往	萬	來	用	變	不	動
運	三	四	成	環	五	七	一	妙
三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三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一	三	一	積	十	鉅	無	櫃	化
盡	本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始	無	始	一	析	三	極	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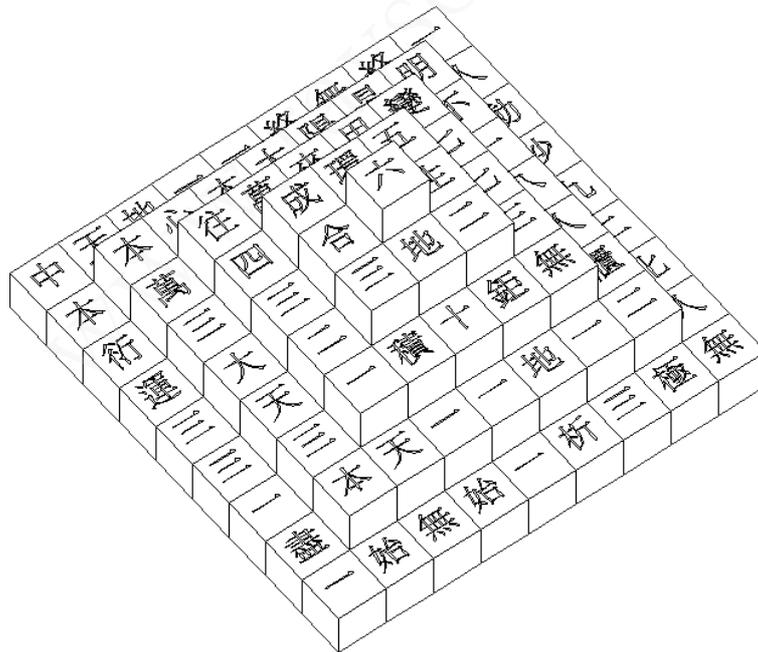
⑥ 표현(表現)

돌아오는 방법을 잊지 않게 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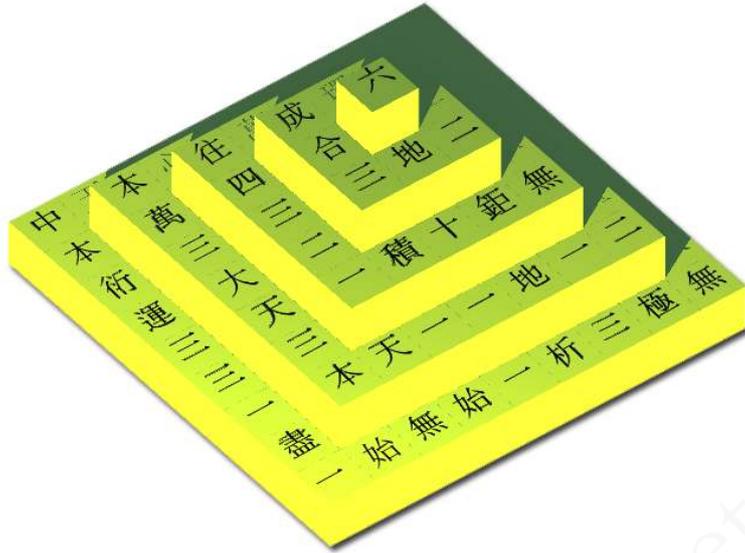
⑦ 입체(立體)

입체도형(立體圖形)으로 표현하여 남기겠다.



⑧ 의도(意圖)

설계도(設計圖)를 보고 부디 의도(意圖)한 바대로 완성하여 돌아오기 바란다.



4. 마무리하면서

《천부경(天符經)》은 우리의 선조(宣祖)들이 복본(復本)을 위하여 '파동체(波動體)의 원리'를 기록해 놓은 글이다. 이것은 생명체의 설계도이며, 피라미드의 설계도이며, 우주(宇宙) 구성(構成)의 원리(原理)이기도 하다. 또한 천부삼인(天符三印)이다.

그들은 마음이 맑고 밝아 하늘의 소리를 울곧게 들을 수 있었으며(具聞天音) 혈기가 청명(血氣清明)하고 품성이 순정(稟性純情)한 사람들이었다. 능히 하늘의 조화를 알았기에(能知造化) 소리 없이 대화할 수 있었고(潛聲能言) 형상이 없어도 능히 행동할 수 있었다(潛形能行). 그래서 땅 기운 중에 퍼져(地氣之中) 영원히 살 수 있었다(其壽無量). 천음(天地本音)의 안내를 받아 현대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은 기본적으로 가졌었다.

하늘의 소리를 울곧게 들을 수 있었기에(具聞天音) 굳이 글이 필요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지본음(天地本音)을 듣지 못하는 구성원들과 갈등과 반목으로 허망하게 과거를 잃고 말았다.

역사(歷史)를 글로 남기지 않았다고, 그들이 '돌맹이만 만지고 살았을 것'이라 설정(設定)한 것은 현대인의 오만이다. 그들보다 발전한 문명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파동체를 구성했던 피라미드의 증거(證據)로 말미암아 한없는 수치(羞恥)로 남았다.

그때로 돌아가려면(復本) 한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젠 그만 그때를 회복할 때다.

5. 참고문헌

- 《부도지》 김은수註解, 한문화멀티미디어 2002
《환단고기》 김은수註解, 가나출판사 1985
《빛의 메시지·수증》 김상표著, 레이소사이어티 2008
《빛의 메시지·UFO》 김상표著, 레이소사이어티 2008
《삼국유사》 이민수譯, 삼성미술문화재단 1979
《신강 훈민정음》 서병국著, 학문사 1984
《주역》 남만성譯解, 현암사 1987
《New motifs in DNA nanotechnology》
Department of Chemistry, New York University 1998